

특별집회
2024년 10월 25-27일

전체 주제: 새 언약의 사역

메시지 1

신약의 사역 —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끄는 그 영의 사역, 의의 사역, 화목의 사역

성경: 고후 3:6-9, 5:18-20

- I. 신약의 사역은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기 위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인 그 영의 사역이다 — 고후 3:6-8, 계 22:17 상, 합 3:2.
- A.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은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것과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B. 먼저 삼일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요 1:14),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 하), 곧 그 영이 되시는 과정을 통과하셨다.
 - C.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완결되신 영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과정을 통과하기 시작한다.
 - D. 이 과정은 거듭남으로 시작하고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으로 계속되고 결국 완결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 E.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에는 ‘그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신부’인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세 부분으로 된 교회와 결혼하는 놀라운 부부가 있다 — 계 22:17 상.
 - F.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이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한 부부, 곧 이 우주 안에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의 총만한 표현을 위한 한 실체로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동일한 종류의 한 쌍의 연인이 되는 것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 G.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은 우리가 신화되는 것과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인 유기적인 구원 전체의 비결이다 — 엡 5:25-27.
 - 1. 그리스도에 의해 소생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신다 — 요 1:12-13, 3:6, 딤후 3:5.
 - 2.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우리의 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다 — 롬 6:19, 22, 엡 5:26.
 - 3.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새롭게 하시는 영은 십자가의 파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 롬 12:2, 엡 4:23-24, 고후 4:16-18.
 - 4. 그리스도로 채워진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변화시키시는 영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도록 변화시키신다 — 고후 3:15-18.
 - 5.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성숙시키시는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만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 골 1:28, 엡 4:13, 롬 8:28-29.
 - 6.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도장 찍으시는 영은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 — 엡 4:30, 히 2:10, 빌 3:20-21.
 - 7. 이것에 더해 우리는 하나님의 강화된 구원의 비결을 보고 체험해야 한다. 어린양께 이끌린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강화되신 영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교회의 하락을 이김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 계 1:4, 3:1, 4:5, 5:6, 2:7, 1:10, 19:7-9, 21:2.

II. 신약의 사역은 의의 사역, 곧 그리스도를 살아 내고 그리스도의 참된 표현인 하나님-사람의 생활이며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끈다 — 고후 3:9, 롬 5:18, 21.

- A.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1.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시다 — 롬 3:24-26, 행 13:39, 갈 3:24 하, 27.
 2.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를 살아 내는 것과 그리스도의 참된 표현, 곧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뛰어난 상태인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시다 — 빌 3:9, 1:21 상.
- B. 이러한 의의 두 방면은 시편 45 편 13 절과 14 절의 왕비의 두 의복으로 예표되었다.
1. 첫번째 의복은 객관적인 의와 상응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 시 45:13 하.
 - a. 이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교회의 의가 되신 것을 상징한다 — 고전 1:30, 눅 15:22, 렘 23:6.
 - b. 그녀가 금으로 뒤틀려진 것은 교회가 신성한 본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 — 시 45:9 하, 벧후 1:4.
 2. 두번째 의복은 주관적인 의와 상응하며 우리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 시 45:14 상, 비교 계 19:8, 마 22:11-12.
 - a.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왕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도록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의 거처로 삼는다 — 시 45:13 상, 요 15:4 상.
 - b. 두 번째 옷 곧 그 여인을 싸고 있는 두 번째 겹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옷 입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임을 상징한다 — 계 19:8.
 - c. 수놓아진 옷은 우리가 살아낸 의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성격 안에 짜여지신, 우리의 존재 안으로 수놓아지신 주관적인 그리스도이다.
 - d. 이렇게 수놓는 것은 우리의 결혼 예복이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한 땀 한 땀 우리 안으로 수놓는 일을 하시는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일을 상징한다.
 - e.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행위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옷으로 입어야 한다 — 계 3:18.
- C. 다음 시대에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신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 살아 낸 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빌 3:9.
- D. 의의 사역은 ‘새하늘과 새땅’(벧후 3:13)에 거하는 ‘의의 성’(사 1:26)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III. 신약의 사역은 화목의 사역이며, 그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따른 목양이다 — 고후 5:18-20.

- A. 화목의 사역은 우리를 바깥뜰에서 지성소 안으로 이끈다.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성소(그리스도, 교회, 우리의 영, 새 예루살렘)인 주님의 집 안에 거하도록 하신다 — 시 23:3, 6, 73:17, 77:13, 요 1:14, 2:21, 딤후 3:15-16, 엡 2:22, 계 21:2-3, 22.
- B.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자격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대표해 사람들을 목양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울은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 고후 5:18-20, 1:3-4, 12, 2:10, 11:2.
- C. 베드로전서 5 장 1 절과 2 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따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인 사랑, 빛, 거룩함, 의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네 가지 속성에 따라 젊은 이들, 약한 이들, 뒤로 물러난 이들을 목양하여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 D.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한다. 화목의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한다 — 고후 5:18-20.

- E.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디에 있는가로 측정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더 있을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화목시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바울은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지성소로 ('나아 가십시오'가 아니라) '나아 오십시오'라고 분부할 수 있었다 — 고후 12:2상, 5:20, 히 10:22.
1. 우리가 일을 수행할 역량이 있지만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열매 없는 이유이다 — 눅 15장, 비교 고전 12:31 하, 딤후 1:7, 몬 9-12.
 2.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공급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호의적이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들로 그들을 보양하는 생명이다 — 고후 12:15, 고전 9:22, 마 9:12.
 3. 바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목양했다. 바울은 약한 이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갔다 — 살전 2:7-8, 11-12, 행 20:19-20, 27, 31, 고후 11:28-29, 고전 9:22, 비교 마 12:20.
- F.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목양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목양하여 그들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2:15, 6:17.
1.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오늘날의 벰엘, 하늘의 문, 지성소인 연합된 영 안의 생활이다 — 엡 2:22, 창 28:12-17, 요 1:51, 히 9:3-4, 10:19-22.
 2.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새 인격이 된) 우리들 모두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이들의 총합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한다 — 엡 3:16-21.
- G. 궁극적이고 영원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계 21:16)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계 7:17)이다.